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범죄·사고 공화국 발자취만 남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퇴임 후의 기록은 발자취로 쓴다'고 한 발언이 '발로 쓴다'라는 종편 뉴스의 자막으로 희화화된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게 다만 에피소드에 불과한 걸까?

우울한 범죄 뉴스, 사고 뉴스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강남역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은 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후 '일베'의 혐오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각성에 찬물을 끼얹은 현상이 충격적이었다.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무 살 청년의 어이없는 죽음은 그 자체로 아픈 것 이상으로, 지하철 '피비아'들의 횡포가 드러나고 모두 2인 1조로 일했다고 거짓하게 기록된 행정 서류의 은폐가 끔찍하기만 했다.

남양주 지하철 현장에서 일어난 폭파 사고를 안타까운 인재 사고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이었고 현장의 정규직 4명은 지상에서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밖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다만 생활고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뿐일까 하는 불안이 깊어진다. 사회적 병리 현상의 밑바닥에 흐르는 조짐이 심상찮은

것이다. 그 와중에 굼직굼직한 범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비윤리적인 기업인의 돌출 행동인 줄로만 포장되었던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로비 사건으로 드러나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종 비리 변론을 통해 수백억 원을 벌여 그 돈을 부동산 사업에 운용했던 것은 구역질 나는 사건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현직 검찰과 판사에 대한 로비라는 '법조 비리'는 없는 양, 흥만표 한 개인의 탈세 혐의로 좁혀 기소하는 것을 보면서 범죄 영화 이상의 막장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전 국민이 알아 버리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법조 비리를 덮으려는 건지 아니면 산업은행을 둘러싼 정권 실세들의 나눠 먹기 놀이를 덮으려는 건지, 갑자기 롯데에 대한 비자금 수사로 모든 언론이 덮이고 있는 것은 심상찮은 조짐이다.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그동안 대우조선에 흘러들여간 현세와, 오직 로비 명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권 부나방들을 고문이나 비상임 이사직으로 앉혀 놓고 벌인 돈 잔치를 보면 영화적 상상 이상의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층에서 이런 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비리, 권력 농단, 돈 놀음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의 바탕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 부조리를 악화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들고, 부도덕한 대기업을 살리겠다고 국책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 내겠다는 행위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범죄와의 전쟁'이란 말이 사라진 지도 오래되었다. 세월호, 국정원 사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등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심각한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기본이 휘청거린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말 묻고 또 묻고 싶은 심정이다. 범죄와 사고는 쌍둥이임을 눈감는 국가, 범죄와 사고를 통해 다치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약한 국민임을 외면하는 국가, 이런 국가가 무슨 소용인가? 가진 자와 더 가지려 드는 자, 탐욕과 출세를 위한 자들이 자행하는 국가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나 끔찍하다.

이명박정부를 흔히 '국가'를 수의 모델로 운영했던 정부'라 일컫던 것도 모자라서, 박근혜정부는 '국가의 기본 기능을 망각한 정부'라는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남은 것은 망가진 대한민국, 치유 불가능한 대한민국, 복원 불가능한 대한민국뿐인 것인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 국가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국민을 외면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세상에 막장 드라마만 있지는 않다. 과거와 현재의 접속 속에서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려 노력하는 경찰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시그널'에서 이재한 형사의 대사는 우리를 울컹하게 했다.

"거기도 그림자니까? 돈 있고 백 있으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평평 거리고 살니까? 그래도 달라졌잖소. 20년이 지났는데."

그 분노 어린 절규에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희망을 품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희망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달라지게 만들어야만 한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의료칼럼

수험생 여름나기



강 채 미  
백달나무한의원 원장

아 집중력, 기억력, 암기력, 이해력 등 학습을 돕는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수험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과식과 야식을 주의해야 한다. 과식을 하고 나면 몸이 더 피로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음식들은 체내에 쌓이게 된다. 그로 인해 뇌의 노화가 촉진되고, 위장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여름철 과식이나 야식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 얇은 잠을 자거나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험생들에게는 탄백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기름진 음식들은 혈액을 탁하게 해 뇌에 해롭다. 특히 외부에서 먹는 기름진 음식에는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산의 함유율이 높다. 단백질 보충에 필요한 경우 DHZ가 많이 함유된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신선한 야채도 도움이 된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를 매일 일정량씩 먹는 것이 좋다. 뇌의 신경 전달 기능과 지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 필수인 데 야채 뿐만 아니라 해조류에도 풍부하다. 땀으로 인한 수분 배출이 많아지는 여

름에는 탈진과 탈수를 조심해야 한다. 여름에 갈증이 나면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또 여름철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체내 혈액 순환과 더위를 이기는 데 좋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배탈과 설사,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수험생은 여름방학이 되더라도 기존의 생활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밤이 짧아지는 여름철이 되면 잠을 늦게 자게 되고, 아침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더 심해지게 되는 데, 잠자리에 들 때는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속면을 위해 자라리 환경을 아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방학을 맞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질환들은 증세가 하루 종일 계속되므로 수험생들 예겐 머리를 명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며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등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때문에 하루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부정해도 수능은 인생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대시 중의 하나이다. 수험생들은 부족한 잠,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체력은 고갈되고 과도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공진단은 수험생들에게 효과가 높다.

공진단은 '못 벌을 꺼 안는다' '세월을 품어 안는다'라는 의미로, 중국 원나라 '세의도약방'과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등에서 이미 그 효력이 널리 인정된 명약이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공진단을 복용하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원천적인 기능을 굳건하게 해 수(水)를 오르게 하고 화(火)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이 생길 수 없게 한다'고 쓰여 있다. '공진단'은 이를 자체만으로도 약의 효능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공진단은 본래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과거에는 먼 길을 떠나는 사신이나 여행자들의 필수 품목이었다. 공진단은 사향 녹용 당구 산수유 숙지황 인삼 등의 고가의 귀한 약재들만 써져 있었으며, 두뇌 혈액순환을 도와 수험생들의 체력과 집중력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기 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박 현 구  
승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필자는 기술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한다. 방송 광고 중 '침대는 거구가 아니라 과학이다'하는 말처럼 '소음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누군가 위에서 사랑스런 손자, 손녀들이 뛰어 노는데 아래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끄럽다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반대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쉬고 있을 때 배려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며 휴식을 방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마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공사장 소음은 매우 시끄러운 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게 백해무익할 것 같은 소음도 제 아무리 시끄러운 건축주에게만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소음이란 '객관적인 정의'가 아니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중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들이 뛰거나 달릴 때 발생하는 소음인 중량 충격음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중량충격음은 장판과 같은 바닥 마감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이며, 슬래브를 두 겹게 하거나, 그 위에 놓이는 완충재의 성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슬래브 아래에 위치하는 전장공간의 흡음력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 기술을

통해 3dB(데시벨)을 줄이려고 한다면 큰 비용이 들게 된다. 소음은 3dB 줄인다는 것은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며, 기술적으로는 바닥충격을 저감 성능을 1 등급만큼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조그마한 배려의 마음이 3데시벨을 줄이기 위해 드는 고도의 기술과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표준 바닥구조의 제정 등을 통해 돌피구를 찾고자 했다. 기준을 높이 만들어 없으면 오히려 높아진 기준에 맞추어 사람들의 욕구도 상승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의 욕구 상승이 기술 발전 추이를 능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 커지게 됨에 따라 '층간소음이 윗사이센터'를 운영하여 해결의 단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믿고 싶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소음이야말로 분쟁이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부산시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시행예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홍보

를 비롯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존 공학적인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아마도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며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 생각한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소음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똑같은 소음이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 마음이 좋은 이웃을 만들게 된다. 좋은 이웃에게 층간소음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단순히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이다.

가을날의 보슬비 소리가 지쳐 있는 어떤 이에게는 편안함을 가져다주지만, 어떤 슬픈 이에게는 더욱 애달픈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고장 광주에는 정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웃간 좋은 정이 많이 쌓이면 그 보다 더 좋은 삶의 터전 이 어디 있을까? 소음이 이웃 사이를 멀게 하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이웃과 정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은 자발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더불어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社 說

수학여행 안전 예산 줄인 정부 세월호 잊었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시행해 오던 수학여행 안전 대책 관련 예산을 슬그머니 깎은 뒤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겼다고 한다. 대형사고가 나면 허둥대다가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 안전불감증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는 각급 학교 수학여행단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왔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자격 소지자, 관광 가이드 중 안전 교육을 15시간 받은 사립의 대사는 우리를 울컹하게 했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가 2억 원인 사업비를 올해 절반 이상 감액한 850만 원만 내려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예산 삭감으로 전남 초·중·고교사 1306명에 대한 교육비는 올 상반기

기 학교별로 자체 충당해야 했다. 또 2년 전 연수를 받은 교사 1781명의 재교육 비용도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수학여행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소규모·테마형 여행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시·군별로 구성된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비마저 줄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도 예산이 부족해 3명의 전담 현장체험 실무사를 1명으로 줄였고 수학여행 컨설팅위원 수도 축소했다. 이렇다 보니 대형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은 예전처럼 전교생이 주말간산 식으로 명승고적을 둘러보는 방식에 답습하기 쉽상이다.

세월호 사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이후 최근 수학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교육부가 안전 교육 예산을 줄인 것은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꼴이다. 당장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방심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신생아 결핵 예방접종 차질 없도록 해야

전남 지역 신생아들이 결핵(BCG) 예방 백신 접종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전국적으로 BCG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서 각 시군 보건소마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신생아의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BCG 접종은 생후 4주 이내(권고)에 해야 하는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7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각 시군 보건소가 확보하고 있는 BCG 백신은 약 85 바이알(ml), 1바이알은 영아 15명 접종분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75명 분량의 백신이 남아 있는 셈이다. 백신 부족난이 극심한 시·군은 목포·신안·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진도 등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적게는 2바이알, 많게는 7바이알의 백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백신이 부족한

시·군을 한데 묶어 거점 보건소를 정한 뒤 인근 시·군에서 BCG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횟수도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백신 대란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주사형 BCG 백신의 경우 덴마크에서 수입해 왔지만 제조사 사정으로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부랴부랴 일본에서 BCG 백신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지만 일본 백신이 공급되기 이전에 기존 백신이 바닥되면서 접종 공백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무료 접종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사업이다. 당연히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접종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때 나의 보스가 세종이나 빅토리아 여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칼럼니스트 김경의 책 '셰익스피어 베케이션'(2009)에서 처음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땐 좀 의아했다. 침단을 달리는 패션잡지 에디터이자, 도발적인 칼럼으로 즐거움을 주던 그녀가 '뽀뽀' 리더치고는 좀 옛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한때 그녀가 두 사람을 흠모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 바로 책과 휴가다.

셰익스피어 휴가

세종은 촉망받는 젊은 선비들에게 긴 휴가를 주어 편안하게 책을 읽게 했다. 이른바 '사거독서'(賜暇讀書) 제도다. "각자 맡은 직무로 인해 독서에 전심할 겨를이 없으니, 지극뉘 분전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고 성과를 내어 내 뜻에 맞게 하라"는 주문이었다.

'독서 휴가'는 1~3년이었고 세종은 독서에 필요한 비용과 음식 및 의복까진 내려 격려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340년간 이어졌고 성삼문, 이항, 정철, 이이, 유성룡, 이항복 등이 혜택을 입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도 신하들에게 3

년에 한 번 꼴로 유급 독서 휴가를 줬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셰익스피어 작품 중 5편을 정독한 뒤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고, 여기에서 유래된 게 '셰익스피어 휴가'(Shakespeare Vacation)다. 부럽게도, 상사복 많은 김경은 1년간 무급 휴가를 얻었고 진짜 '셰익스피어 휴가'를 떠났다. 바르셀로나에서 '바람의 그림자'(카를로스 루이스 사폰)를 읽는 행복한 여정은 나중에 책으로 나왔다.

한낱 기운이 30대를 넘나들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애석게 책을 읽게 했다. 이른바 '사거독서' (賜暇讀書) 제도다. "각자 맡은 직무로 인해 독서에 전심할 겨를이 없으니, 지극뉘 분전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고 성과를 내어 내 뜻에 맞게 하라"는 주문이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화제작 덕에 교보문고 책 판매량이 3년 만에 신장세로 돌아섰는데, 이참에 한강이나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 예전처럼 시원한 도서관도 있으니 책 걱정은 마시길.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